

전남도, 식품제조업체-유통업체 상생협력 이끈다

28억원 규모 식품 위탁 생산·제품 개발·원료 공급 등 협약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농산물 안정적 소비처 확보

전남도가 농어축산 등 가공제품의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고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등 도내 식품제조업체의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가 서울, 광주 등 9개 유통업체와 도내 6개 식품제조업체 간 28억원 규모의 위탁 생산 협약을 이뤘다.

식품제조업체의 수요 물량 확대로 가동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11일 식품산업연구센터에서 식품제조업체, 유통업체 관계자와 나주, 구례, 곡성, 영광, 함평 등 5개 시·군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제조-유통업체간 상생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식품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식품 위탁 생산과 제품개발, 원료공급 등에 상호 협력한다. 시·군과 식품산업연구센터는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와 판매촉진, 홍보, 신제품, 디자인 개발,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기업별로 흑염소죽 등을 생산하는 나주 농협회사법인(㈜새물한방제약)은 나주우렁이영여조합법인과 서울(주)HR커머스 2개 업체 등과 10억원, 수제맥주를 생산하는(주)레옹조는 여수밤바다F&B, 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주) 등 3개 업체와 8억원 상당을 위탁생산하기로 했다.

과일음료와 스틱형 석류콜라겐 등을 생산하는 나주 좋은농조합법인은 영산홍이㈜, ㈜오트릿,

농업회사법인 순천엔메일(주) 등 3개 업체로부터 3억원 규모 식품 생산을 위탁받았다.

김치를 생산하는 곡성 옥과맛있는김치 영농조합법인과 추어탕을 생산하는 함평 농업회사법인(유)나비원, 곰탕을 생산하는 영광 농업회사법인(주)웰빙푸드는 광주 향꾸네 추어탕 등과 7억원 규모를 협약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6개 식품제조업체는 평균 가동률이 10~20% 향상될 전망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식품제조업체의 가동률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 등과 직결된다"며 "도내 업체에 위탁생산하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상품 디자인 인쇄 시 사용하는 동판 제작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연말까지 60여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신규 수요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로 웨이스트 날' 캠페인 11일 광주 남구청사 후문에서 남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구청 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로 웨이스트 날' 캠페인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4차 접종' 50대까지 확대하나

BA.5변이 특성 감안, 감염예방보다는 중증화 예방에 집중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하면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요양시설 입소·종사자들로 한정되었는데 여기에 '50세 이상' 등 대상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13일 4차 접종 대상자 확대 방안이 포함된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백신 4차 접종을 하면서 "정부가 더 많은 분께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곧 범위 확대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접종대상 확대를 예고했다.

당초 정부는 전국민 4차 접종 방안도 검토했으나 새로운 변이를 반영한 '업데이트(개량) 백신'의 개발 원료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재유행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일단 감염과 중증화 예방이 시급한 고위험군 접종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접종 확대는 50대

까지가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전문가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유행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50세 이상까지 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50세 아래는 (4차 백신 접종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재유행을 주도하는 BA.5 변이 감염 자체를 막기보다는 중증화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만큼 중증화율이 낮은 젊은 연령대에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접종대상 확대와 함께 4차 접종의 적극 권고 대상을 '80세 이상'에서 '60대'로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광주는 267명, 전남은 236명 등 503명이 신규 감염됐다. 지난 5일부터 하루 3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숫자지만 후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19일 116명이었던 확진자는 조금씩 늘어나는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남도 최근 일주일간 매일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보건환경연,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시행

1~2주 잠복기...발열·발진 증상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1일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지난 6월22일 독일에서 귀국한 내국인이 국내 첫번째 확진을 받으면서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주관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법 교육(6월16일)과 검사능력평가(6월30일~7월4일) 등에서 합격 판정을 받고 진단검사능력을 확보했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5월 유럽과 북미 등에서 이례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면서 질병관리청은 6월8일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지난 7일 기준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총 57개국에서 7594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아시아 지역은 한국 1명, 싱가포르 2명, 대만 1명으로 총 4명이다.

원숭이두창은 감염되면 1~2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근육통, 오한, 림프절 비대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을 중심으로 발진 증상이 나타나며 몸의 다른 부위로 발진이 확산된다. 전용 치료제는 없으며,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 치료하고 있다.

박진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장은 "원숭이두창의 조기 발견과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생수칙 준수 등 시민의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지역 내 의심사례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검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전국·임야
삽·니·다

천평이상, 지분현명, 맹지사질
010-3605-5000

"미테구에 영광...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기 바랍니다"

독·프·일 지식인들, 베를린 미테구에 "소녀상 영구존치" 서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있는 것은 미테구에 영광입니다. 현재 그 자리에 영구히 머물기 바랍니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의 교수와 학자 14명이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영구존치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1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보낸 서한에는 독일 라이프치히대 일본학과 슈테피 리히터와 도로테아 블라데노바 교수, 레기나 뢰호이저 함부르크 학술문화지원재단 소속 역사학자가 대표로 서명했다.

이은정 베를린자유대 역사문화학부 학장과 엘리사 마이렌더 파리정치대 교수, 스펀 잘라 일본 소피아대 현대일본사 교수 등도 참여했다. 마침 서한을 제출한 이틀날 미테구의회는 평화의 소녀상 영구존치와 관련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들 지식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시성 폭력이 과거의 문제가 아님을 극적으로 보여준다"며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와 네덜란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1990년대 이후 공개증언의 용기와 정치적 투쟁의 진가에 대한 인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녀상은 이들 여성에게 가해진 범죄의 심각성과 장기적 영향의 뒤늦은 인정이며, 또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는 여성에 대한 전시성폭력을 주목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녀상은 항상 모든 곳에서의 성폭력과 성노예화에 이의를 제기한다"면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면서 끈기 있게 이의를 제기하는 게 소녀상의 힘"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슈테판 폰다셀 미테구청장과 엘리자베타 캄 미테구의회 의장, 미테구의회를 호명하면서 "평화의 소녀상이 베를린에 영원히 머물게 해 전시성폭력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낙인에 반대하는 뚜렷한 반대의 신호를 보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특허청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농장 임대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생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내

면적 : 공장 150평, 방동청고 200평 (급냉동, 냉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설 : 최신기계설비반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액 :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공고

• 피상속인 : 양 김도옥(720904-XXXXXX)
• 피후주소 : 광주 광산구 월계로 117-21, 103동 106호 (월계동, 청단두산1차아파트)
피상속인 양 김도옥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광주 가정법원 2022년 단3628호로 신청하여 2022년 7월 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 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7월 12일

• 상속인 : 1. 김진선(810522-XXXXXX) 2. 김준우(140926-XXXXXX)
상속인 1,2 주소 : 광주 광산구 월계로 117-21, 103동 106호 (월계동, 청단두산1차아파트)
상속인 2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진선
• 신고기간 : 2022. 7. 12. ~ 2022. 9. 21.
• 재판관공고소 : 상속인 1. 김진선의 주소

산행안내

7월16일(토)

▲광주호산회 7월 16일(토) 통영 욕지도 섬산행 05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6시 롯데백화점 06시15분 예술회관후문 ※ 다음 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여행구독 220-0550